경허 선사 세미나… 논란 재점화?

조계종 교육원·수덕사,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
〈불교 평론〉 폐간 등으로 일정 수정, 효탄 스님 등 5명 발표



박재현 교수
"경허, 부정적 평 친일사관 반영"



김방룡 교수
"진속 구분 없는 무애수행법, 행리 문제 안 돼"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불교평론〉 폐간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연기 됐다가 한 달여 만에 본격화 돼 눈길을 끈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윤창화 민족사 대표에 의해 논쟁이 된 경허 스님의 주색 및 삼수갑산행과 관한 다른 입장을 밝힌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대문제와 경허의 사상'에서 "경허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평에는 식민통치 이념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허에 대해 평가를 내린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친일 성향을 강하게 보였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 기록을 남긴 권상로와 김태흡을 예로 들어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화 운동인 심전(心田) 개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며 "그들의 눈에는 경허 스님은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으며 주색과 관련된 일화는 부정적으로 확대 재해석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또 "경허 선사가 자신의 주색 관련 행적에 대한 입장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심리학에서의 자아 수용의 성격이 강하며 삼수갑산행도 도피성이 아닌 당시 불교계의 권력지향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식이 반영된 자기 비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허의 간화선과 수행관'을 발표할 예정인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경허 스님의 수행에는 진과 속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행리를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교수는 경허 선사가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며 경허 선사의 선 특징은 선과 악, 성과 속을 떠난 경계에서 무념 무애의 수행법이 특징이라고 입장을 피력한다.

전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경허선사의 법맥과 계승을 논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허 선사가 스스로 자신의 법계를 청허휴정 하 11세손, 환성지안 하 7세손으로 밝힌 바 있다. 효탄 스님은 경허 선사가 편찬한 '선문촬요(禪門撮要)'를 기반으로 경허 선사 법맥을 계승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는 '경허의 문학'을,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 중흥조'를 통해 각각 경허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욱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강사,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경집 진각대학원대 겸임교수, 이성운 동국대 강사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기로 했던 김호성 교수와 이덕진 교수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허 선사의 행장과 설법과 시가 등을 면밀히 탐구하고 분석하게 될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법문하며 학술세미나 이후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81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서화에 뛰어났던 원기 스님

호명 스님, "원기 스님 문집 자료 모집"



원기 스님 영정

대강백이며 선교양종 교정이었던 경운(擎雲) 원기(元奇) 스님의 사상을 재정립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선암사 경운원기 선양실천회(대표 호명 · 선암사 종회의장 · 서울 염불사 주지)는 2013년 6월 14일 '경운 원기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경운 원기의 불교사적 위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학)의 '근대 선암사와 화엄종풍'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화엄종주 경운원기의 사상)' △김경집 교수(위덕대)의 '근대 경운원기의 활동' △진철문 교수(동국대)의 '경운원기의 서화(書畵)에 나타난 예술세계' 등 주제논문 발표가 이어진다. 장소는 미정이다.

경운 원기(1852~1936) 스님은 조선 철종 3년 영남 웅천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출가에 뜻을 품고 17세 되던 해인 1868년 지리산 연곡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선암사 대승강원에 들어가 경붕 익운(景鵬 益運)의 강석을 물려받았다.

스님은 특히 명필로 이름나 29세 때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양산 통도사에서 금자법화경 사경을 했으며, 31본산 주지스님들이 선암사(仙巖寺) 대승암으로 찾아와 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교학에 밝아 함명스님, 경붕 스님과 함께 대강백 이었다.

원기 스님은 1911년 정월 15일 일본 불교화 하려는 이회광의 원종에 맞서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창종된 조선불교 임제종 관장에 선출되고,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교무원 창립시 교정으로 추대됐다. 이후 1936년 세수 85세로 선암사에서 열반했다.

원기 스님의 증손인 호명 스님은 "원기 스님은 선암사를 중심으로 화엄의 종풍이 계승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30세 대승암에서 후학을 가르친 이후 많은 제자가 그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02)938-9395

이나은 기자

고려 '팔관회' 복원 추진

부산불교계, 주요 문화재로 육성 방침 밝혀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이어 고려시대의 중요한 국가행사했던 '팔관회'를 복원,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팔관회의 복원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팔관회를 여법하게 복원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로써 연등회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팔관회는 당시 불교문화를 비롯한 사회상을 대변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오늘날 유 · 무형 문화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개혁 백련결사 재조명

백련사,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개최

고려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개혁을 위한 불교운동이었던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개최된다.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11월 24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원묘국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채상식 부산대 교수의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김정희 서울대 연구교수의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정토신앙의 재조명',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참회수행의 재조명' 등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인선 순천대 교수, 이기운 동국대 연구교수, 최연식 목포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한편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백련결사를 하셨던 고려 8국사중 4국사가 수행을 하셨던 용혈암 추모순례도 같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조선후기 불교 · 유교 교류 흔적 보여주는 전적

동국대 〈침굉집〉 〈삼봉집〉 펴내



조선후기 불교와 유교의 지식인들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책 〈침굉집〉과 〈삼봉집〉이 잇따라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3차분 사업으로 발간한 조선 후기 화악 지탁 스님의 〈삼봉집三峰集〉과 침굉 현변 스님의 〈침굉집枕肱集〉이 그것이다.

화악 지탁 스님의 삼봉집은 19세기 초반에 유자들과 교류가 긴밀해진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집으로 주목된다.

지탁 스님이 후배들에게 시평을 읽도록 하고 문장을 쓸 때 천기를 유출하도록 권하는 모습은 희귀한 사례로 보인다.

지리산 연곡사와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등에 주석하고 말년에는 금화산 징광사에서 입적한 침굉 현변 스님의 〈침굉집〉은 17세기 불가의 교학 방식이나 수행문화,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해 불교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동국대 출판부는 2020년까지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불교 문헌 323편 전체를 학술적 완성도가 높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시리즈로 매년 순차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자아와 영혼 주제 학술대회

인도철학회,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에서 본 나 · 자아 · 영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사론 파아품과 세친의 무아론 논증'(박창환), '여래장 사상에서 자아와 무아'(김성철), '인도철학에서 자아재념의 공유와 차별'(정승석),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자아정체성 귀환과 사라진 이야기(박효엽), 미망사의 앎과 행위주체로서의 자아(성청환) 등 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의 종지 종통 고찰

한일불교유학생協, 24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서

한일불교유학생협의회(상임공동대표 현해)는 11 24일 오후 12시 30분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종조 종명 및 종지 종통에 관한 역사적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김용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의 종통과 종지'를,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한국불교의 전개와 주도종파의 계승'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 고려대장경연구소 업무협약

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 공동 추진키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과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31일 한국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한국전래진언결집과 자전편찬사업은 한국 인문학의 연구토대를 확산하고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각종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국전래진언결집 및 자전편찬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보고, 원활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문헌과 인력 기술력 등의 상호 제공,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물 보고와 상호 공유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진각종 교육원은 11월 30일 오후1시 진각문화전승관에서 제14회 진각논문발표회를 실시한다.

김주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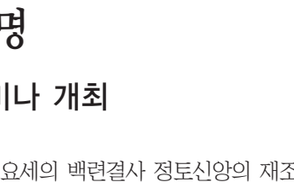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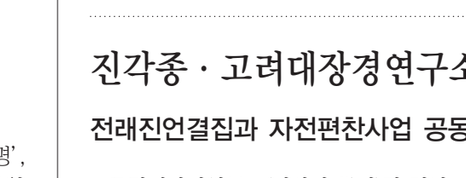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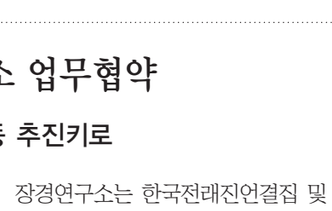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